

글쟁이 X 후국일



성답 및 해설



랜덤
모의
고사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비문학 16~21번]

16번 : ㉔[거시]

->㉔번 선지와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네요. 얼핏 보면 ㉔번 선처럼 [소리]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문단의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에서 알 수 있듯, [음악적 아름다움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것이 글의 중심 주제이다. 또한 그러한 구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주기성, 진동수]등으로 소리를 구분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과 같이 이 글은 예술로서의 음악, 음악적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고른음, 단순음, 복합음, 소리스펙트럼, 음정에 따라 달라지는 협화도를 통해 소리를 분석하고, 한슬리크가 말하는 음악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를 바탕으로 음악적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7번 : ㉓[정의][인과]

->해당 선지는 지문에서 해당 그림이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의 그림이며, 소리스펙트럼, 부분음, 기본음의 [정의]와[특징]을 파악했는지를 묻는 선지이다. 2문단에 따르면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고, 그러한 부분음 중,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한다. 3문단의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에서 해당 그림이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그림에서 110~550의 각 값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순음을 의미하며, 그 중 진동수가 가장 작은 110이 [기본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로축의 세기를 보면 110인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높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㉑[정의]

->해당 그림의 각 부분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떠보는 선지이다. 그림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선지이다. 하지만 해당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해당 그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고른음의 소리스펙트럼]일 뿐이다.

㉒[정의][조건]

->3문단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를 보면 우리의 귀는 [복합음의 진동수=기본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해당 그림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는 110이므로 인식되는 진동수는 110이다.

㉓[정의][인과]

->3문단의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에서 알 수 있듯 음색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220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지면 상대적인 관계가 변하므로 음색은 변하게 될 것이다.

㉔[정의][구분]

->3문단의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에서 해당 그림이 [시끄러운 음의 소리 스펙트럼]이 아니라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선지의 [심벌즈]는 [시끄러운 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모순이 있는 선지이다.

18번 : ㉔[인과][특징]

해당 문제는 ㉔=한슬리크의 입장을 지문에서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묻고 있다. 5문단에서 한슬리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다. 즉 음악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형식이], [정서&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㉑의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움], ㉒의 [불안감을 조성], ㉓의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㉔의 [정서적인 음악]이 오답의 근거가 된다. 모두 [형식] 그 자체보단 [정서&감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㉔은 [음의 간격이 완전 5도, 조직적으로 연결->주제가 명확한 음악]과 같이 형식 그 자체에 주목했으므로 정답이다.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19번 : ㉔[정의][인과]

->해당 문제는 [A]에서 설명한 개념들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즉 각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A]를 보면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결정됨]이며 [음정=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표현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단서는 2문단에서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이다. 즉 진동수가 높은 음을 음고가 높다고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P와Q 중 음고는 Q가 더 높으므로, $[550/440]=[5/4]$ 가 된다. Q와R은 $[660/550]=[6/5]$ 가 된다. 해당 선지의 음정을 표현한 분수 값이 더 크다는 것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5/4]>[6/5]$ 이므로 P와R의 음정이 더 넓다고 봐야한다.

㉓,㉑

->[협화 음정]의 정의는 [차리리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P와R은 $[660/440=3/2]$ 이므로 협화음정이다.(=㉓)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P&S는 $[2/1]$, Q&R은 $[6/5]$ 이고, [A]에서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㉑)

㉒

->3문단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기>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의 발생하는 음(P,Q,R,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므로 [고른음]이다. 따라서 P,Q,R,S에 해당하는 음들은 표현된 기본음들의 정수배의 부분음들을 갖는다. 따라서 P의 부분음들로는 440,880,1320,1760~ 이 있을 것이고, S의 부분음들로는 880,1760~등이 있을 것이므로 적절하다.

㉕

->[5/4]는 장3도이다.

20번 : ㉔[정의][조건]

해당 문제는 단순히 각 개념들의 정의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이다. 깊은 추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지문을 읽기 전 문제를 먼저 읽을 때 해당 문제를 확인했다면, 지문을 읽을 때 6~7문단에서 각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설명될 때 외우려거나, 한 번에 읽고 처리하려는 것 보단, 각 개념들마다 돌아와서 확인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물론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의 다 기억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6문단의 [리듬은 음고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 리듬은 음고를 갖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정의]를 서술하는 부분 중에서 나타나는 이원적인 조건[유/무]를 통해서 오답 선지를 구성한 유형이다. 따라서 지문을 읽을 때 저러한 이원적인 조건이 나타나는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㉑[정의/특징]

->6문단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㉒[정의/특징]

->6문단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 7문단[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㉓[정의/특징]

->6문단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내는 식별가능한 소리이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데 활용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㉕[정의/특징]

->6문단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7문단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번 : ㉕

->해당 문장은 인용절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를 안은 문장이다. 인용절은 '내일까지 돈을 구하겠다'와'내일까지 오겠다'가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즉 '오겠다'는 자립적으로 쓰여서 ㉑과 같이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쓰임이 유사하다고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볼 수 있다.

①

->'두다'는 '보유'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요언이다.

②

->'버리다'는 '완료'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이다.

③

->'주다'는 '봉사'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이다.

④

->'보다'는 '시행'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이다.

[문학 22~27번]

(가) [김소월 - 나의 집]

->이 시가 어려운 이유는 행간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읽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1~4행 : [화자 ->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슁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다시금 큰 길을 앞애다 두고 -> 자신의 집을 짓고자 함]

5~6행 : [화자의 집 앞에 있는 큰 길 = 그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7~13행 :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화자는 집 문간에 서서 ->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 그대를 기다림]

-> 결국 [화자는 -> 집 짓고 -> 그러한 집 앞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 그대를 기다림]이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나) [윤동주 - 길]

1연 : [화자는 무엇을, 또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 길에 나감]

2연 : [화자가 나간 그 길은 돌담을 끼고 가는데, 그러한 돌담은 끝없이 연달아 있음]

3연 : [화자가 나간 길이 끼고 있는 담은 쇠문을 굳게 닫고 있고 -> 길 위에 그러한 담의 그림자가 드리움]

4연 : [길은 아침->저녁->아침으로 통함]

5연 : [화자는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가 ->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은 부끄럽게 푸름, 하늘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하늘은 푸른데 그러한 푸름 때문에 화자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말이겠네요.]

6연 : [앞의 연에서 말한 것처럼 화자는 길에 있는데, 그 길은 풀한 포기 없는 길. 화자가 그런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에 자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7연 : [화자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래요. 즉 여기서 앞 연과 연결지어주면 결국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이고, 그러한 자신은 담 너머에 남아있죠. 그래서 화자는 아까 돌담을 더듬으면서 눈물을 지었나 봐요. 그렇다면 돌담은 화자가 찾는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화자는 무언가를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몰라 ->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로 나옴 -> 길은 담이 줄라 길게 이어져있고, 그 담은 쇠문으로 굳게 닫혀있음 -> 화자가 그러한 길을 걷는 까닭은 담 너머에 자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함이래요. 화자는 아까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주머니를 뒤지면서 길로 나왔죠. 결국 잃은 것은 담 너머의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담은 장애물 정도 ㅇㅇ.]

(다) [월명사 - 제망매가]

작품 해설 : 이 시는 누이의 죽음을 이룬 바람에 떨어진 잎으로 표현한 비유가 특히 뛰어난 시래요. 누이의 죽음에 다른 이별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화자의 신앙심 또한 잘 드러난다고 하네요. 사실 이거 작품 배경 지식 찾아보고 쓰는 건데, 만약 이 시를 처음 보는 시라면 여러분이 과연 <보기>없이 [누이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알아두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 정리만 다시 봅시다.

1~4행 :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듯한 부분이죠. 생사의 길을 여기 있어서 머뭇거리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네요. -> 여기서 “나”는 화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대상이겠죠. 즉 사실은 그게 누이인데, 그 정도는 몰라도 돼요. “어떤 대상 = 아마 간 듯, 그런데 생사의 길을 언급한 걸 보니 간다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듯” 정도로 생각 해주면 됨. 이 정도는 주어진 발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5~8행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입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를 보면 “처럼”이니까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죠. 즉 어떤 대상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입에 비유한 건데, 아마 앞 행을 보면 [떠난 대상 = 아마 죽은 대상]을 비유한 표현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입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른다]를 보면 마치 앞들이 한 가지에서 나지만 바람에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감이 좋으면 [한 가지에 난 잎들 = 한 부모에 난 자식]정도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 되면 선지로 가서 구체화하면 돼요.

9~10행 : [화자는 미타찰에서 그 대상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 닦아 기다리겠다고 함.]이네요. 죽은 대상을 미타찰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으며 도를 닦으면서 기다릴 거래요.

22번 : ㉔

->(가)에서 화자는 [물가 뒤에 집을 짓고 -> 문간에 서서 -> 그대를 기다림], (나)에서 화자는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풀 한포기 없는 길을 걸음 ->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어서 -> 즉 화자는 담 너머 잃은 자신을 찾기 위해 삼], (다)에서 [생사 길은 예(=여기)있으며 머뭇거리 -> 누군가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못다 이르고 가버림 -> 화자는 그러한 대상을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면 도 닦아 기다리겠다고 다짐(~노라 = 의지적 표현)]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시의 함축적인 의미와 연결시킨다면 (가)는 입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 (나)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는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도를 닦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시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보기>도 없는데 이렇게 해석 불가능. ㅁㅁ. 처음 설명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08학년도 6평 1등급 컷 84임, 2컷 76점, 3컷 68점. 실화임. 문학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나왔음. 다만 결국 같음. 주어진 발문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실 정보 파악해서 푸느냐가 관건. 이런 난이도일수록 주관이 개입되면 x 망. 그래서 어쨌든 ㉔이 적절한 선지네요. 화자가 처한 상황은 거의 대부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대응 방식]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았어요. (가)는 집 짓는 거, (나)는 길을 걷는 것, (다)는 도 닦아 기다리는 것.

㉑

->X/X/X.

㉒

->X/X/X.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은 없죠. (다)에서도 미타찰이 바람직한 세계는 아니잖아요.

㉓

->X/X/X. [낙관적 : 미래를 밝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인데, 셋 다 없죠. (가)에서 [님은 꼭 올거야! 데헛!], (나)에서 [나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데헛!], (다)에서 [아싸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볼 수 있겠네 데헛!]이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있긴 하지만, 그게 낙관적 전망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㉕

->X/X/X.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셋 다 없음. (다)에선 오히려 인간을 자연에 대응시켜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23번 : ㉒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게 표현한다는 것인데, 시간은 순차적으로 흘러가죠. 따라서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데, [A]는 [새벽 새 울며 -> 아침 이 옴]이라 매우 자연스럽네요. ㅁㅁ. 그렇다고 [B]를 또 뇌내망상해서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침 -> 저녁 -> 아침] 역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죠. 하루는 순환되잖아요. ㅁㅁ. 따라서 그냥 개소리인 선지예요.

㉑

->[A :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 언제? -> 새벽~아침부터]이므로 적절하네요. [B]에서 시간은 아침과 저녁을 나타내겠죠.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그런데 아침과 저녁은 [길]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길]은 화자가 [무엇인가를 잃어서] 나온 공간이며,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기 때문 -> 그런데 그 담은 쇠문을 굳게 닫고 있음]이라고 했죠. 따라서 [시간 -> 길 -> 화자의 고뇌]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죠.

③

->[길 : 공간 + 아침, 저녁 : 시간]이니까 맞네요.

④

->[아침 -> 저녁 -> 아침]이니까 맞네요. 시간의 순환적인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죠.

⑤

->맞네요. [감각적 이미지 =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미지]정도가 될 텐데, 시에는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는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감각적 이미지 역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세상은 희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시각적 이미지 / 새벽 새가 울며, 고요하게 -> 청각적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24번 : ⑤

->(나)에서 화자는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고 하죠. 하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늘을 보니까 푸른데, 마치 자신이 부끄럽게 푸르다라고 하는 거죠. 즉 화자는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는 반성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단서가 되겠죠. (다)에서는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를 보면 알 수 있듯, 화자는 [가버린 대상]과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며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따라서 미타찰은 [가버린 대상과의 재회]와 같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①

->오 환상! 개소리!

②

->(나)의 화자는 현재 길에 있고, (다)의 화자는 아직 미타찰에 안 갔어요.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③

->(나)의 하늘은 숭고함(=뜻이 높고 고상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명시적 발문은 없지만, 하늘은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푸른 대상이니까요. 다만 미타찰이 비상함을 드러낸다는 게 명시적 개소리네요. ㅇㅇ.

④

->오 개소리!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보기에 힘들죠. 미타찰은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죽은 뒤에 가게 되는 곳이니까요. 오히려 [예]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5번 : ⑤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개소리죠. 집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을 기다리는 장소죠. [탈속 1) 부와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남 2) 속세에서 벗어남]인데, 둘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뇌내망상 ㅋㅋ.

①

->맞네요. [생사의 길은 여기 있는데 -> 머뭇거림]은 생사에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②

->길은 화자가 현재 걷고 있는 공간인데, 풀 한 포기 없다라는 것은 황량하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네요.

③

->맞겠죠. 화자는 길을 걷고 있는데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건 담 너머의 남아있는 자신이었죠. 따라서 그러한 담이 ㉠에서처럼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있으면 나 같아도 마음이 무거울 듯.

④

->㉠ 앞부분부터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림 -> 근데 뭘 잃어버렸는지,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몰라 ->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로 나감]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길에서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이었죠. 따라서 내면적 방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6번 : ③

->[토속적 : 그 지방에만 특유한 풍속을 담은, 또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토속적 방언]이란 그러한 사투리를 의미하는데 방언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이 없잖아요. [메]보고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메]는 [산]의 옛말이지, 사투리는 아니죠. 토속적, 향토적인 느낌은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방언이 아니니까 오답.

①

->[하이얀 여울턱]에서확인 가능하네요. 색채어란 색깔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색채, 색채이미지는 좀 더 넓은 범위로요. [눈 -> 하얀색]인 것처럼요.

②

->[하얀 -> 하이얀 : 음절 수 늘림], [그대인가하고 -> 그대인가고 : 음절 수 줄임]이므로 적절하네요.

④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 나는 나의 집을 지오리],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새벽 ~ 아침 부터 나는 문간에 서서 그대인가고 기다리리]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⑤

->길, 나는, 그대인가고 등이 반복되네요.

27번 : ⑤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했으면 전형적인 내신 공부의 폐해임. [바람 -> 도화를 지게 함 -> 화자의 시련이겠구나]와 같은 뇌내망상. 바람이 화자의 시련이라면 A에서 도화는 화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죠. 바람은 그냥 도화를 지게 하는 것이예요. ㅇㅇ. 팩트 기반 제발. 오히려 @가 화자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에서는 [바람 -> 잎 떨어짐 = 그것처럼 누군가도 떠남 -> 그런데 화자는 그 대상에게 떠난다는 말도 없이 어찌가냐 했음 -> 따라서 그런 대상의 부재를 야기하는 바람은 시련으로 보기에 충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①

->그렇죠.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진 것도 아니니까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니까 수동적이라고 보는 게 적절해요.

②

->맞네요. ⑥의 잃은 화자가 아니죠. [⑥처럼 가는 곳 모르온저 -> ⑥는 “나는 간다”말도 못하고 간 대상]이잖아요. 반면 B의 나무는 <보기>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 비와도 싹이 나지 않음] = [화자는 임 그리워 병이 들 = 약 먹어도 안 낫]를 통해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③

->[부각]이 핵심이에요. 유발이 아니라, 부각. ㅇㅋ? 즉 화자의 감회와 흥취가 있었는데, 부각 됨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러한 감회와 흥취는 어디서 옴? 그렇죠. 간밤에 바람이 불기 전 만정(=뜰에 가득했던) 도화로부터 오겠죠. A를 보면 [바람 불어 -> 만정(=뜰에 가득한) 도화 다 짐 -> 아이가 빗자루로 쓸러하니까 -> 낙화도 꽃이라고 쓸지 말라함 -> 그 말은 화자는 꽃 좋아함 -> 따라서 뜰에 가득한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나타냄]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④

->맞네요. (다)에서는 [⑥->잎이 떨어짐], <보기>에서는 [바람 -> 도화가 짐]이니까요.

[비문학 28~32번]

28번 : ⑤[거시][비교]

-> [뒤르켐의 이론적 통찰] -> [파슨스와 스텔서의 구체화 = 기능주의 이론] -> [알렉산더의 수용과 한계 보완 = 사회적 공언론]이었죠. ③이 적절한 선지네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문장 단위 독해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단간의 큰 흐름들을 잡으면 수월하게 지을 수 있어요.)

①

->다양한 사례들은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②

-> 상반된 견해는 나오지 않았고. 두 견해가 아니라, 견해는 총 3가지였네요.

③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역사적 기원X만 보고 그냥 걸려주면 되는 선지네요.

④

-> 중심 화제는 [집합 의례에 대한 탐구]였죠. 합의한 결과가 아니었죠.

29번 : ㉠[구분/비교]

-> 그냥 일치 불일치를 찾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필요성을 주장했는지를 흐름으로 파악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즉 [㉠=기능주의 이론 ->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본 반면에 [㉡=사회적 공연론에서는 그러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 각 요소들은 자율성이 있고 분화되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이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고 함 -> 그래서 집합의례 과정에서 어떤 조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융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강조]였죠. ㉤은 적절하네요. / ㉢은 ㉡에만 해당하는 내용 / ㉣은 반대로 된 선지

①[구분/비교]

->㉡과 ㉢ 모두 [현대 사회 분류 체계 존재 -> 그러한 체계에 따라 판별하는 과정 = 집합의례]라고 봤으니까요. 뒤르켐의 이론적 통찰에서부터 이어진 부분.)

④[구분/비교]

->㉡과 ㉢의 공통점이죠. [집합의례 -> 가치의 일반화]

30번 : ㉣[예시][인과]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나지 못했죠. 사회적 공연론의 관점, 알렉산더가 주장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알렉산더에 따르면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면 [찬성파와 반대파]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지 못했으며 가치의 일반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즉 [사회적 공연 요소 -> 융합 -> 집합의례 -> 가치의 일반화]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①[예시][인과]

->그렇죠.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고 있죠. [찬성vs반대 -> 둘 다 경제 발전에는 찬성]이잖아요.

②[예시][인과]

->이 선지를 많이들 골랐더라고요.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죠. [상징적 생산 수단 = 중앙 언론], [사회적 권력 = 경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경찰을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즉 전파를 막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사회적 권력이면 공연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문을 잘 보면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가 된 사회적 권력이어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해당 선지의 발문은 잘 보시면 [고도로 분화된]이라는 발문이 빠져있죠. 즉 그 정도로 고도로 분화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보기>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전파를 막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봐줘야겠네요. [조건/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선지.

③[예시][인과]

->맞는 설명이네요.

⑤[예시][인과]

->맞네요. <보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허가 X -> 집회 못함 -> 전국적으로 알리지 못함 -> 공연의 미장센이 A시의 한정]

31번 : ㉠[인과][비교]

->너무 쉬움. [속에서 -> 성]으로 옮긴다고 했죠. 위기 상황 전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사회적 삶에서 이해관계에 관심을 두고, 가치는 그 아래 잠재되어 있음 -> 위기 시기 -> 관심이 속에서 성으로 상승함]이라고 했죠.

①[인과][비교]

->평상시 잠재되어 있던 도덕적 의미를 회복한다는 게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②[인과][비교]

->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집합의례를 행한다고 했죠.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한 집합의례를 통해 심리적 긴장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과 압박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항상성을 회복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기체의 항상성 회복 과정에 유추해서 기능주의 이론을 주장한 거구요.

③[인과][비교]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은 속된 생활에서 추구하는 거죠. 위기 시기에는 [특수한 이해 관계 -> 보편적 가치로 관심이 상승]이라고 했네요.

④[인과][비교]

->[속된 일상 : 가치 추구X,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감]이라고 했잖아요. 위기 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행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32번 : ⑤[구분/비교/인과]

-> [공동체 구성원 -> 집합 의례 -> 그 과정에서 성과 속 판별 -> 성을 중심으로 결속 -> 기존의 도덕 공동체의 회복 +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이었죠. [구제적인 이해관계 (-> 성스러움, 도덕적 의미)를 [비교]해주시면서 읽었으면 쉽게 눈에 띄는 선지네요.

①,②[구분/비교][인과]

->뒤르켐에 따르면 [부족 사회 -> 집합의례 -> 기존의 도덕 공동체 재생 / 현대 사회 -> 집합의례 -> 기존 +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이었죠. 큰 흐름만 잡았으면 쉬운 선지. 그렇지 않았다면 두 선지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일일이 대응해서 찾았겠죠.

③[인과]

->맞네요. 너무 쉬운 선지네요. [집합의례 -> 단순히 먹고사는 의미의 생계활동 = 성스러움과 연결 -> 도덕적 의미]였잖아요. 단순히 정보를 뇌에 때려 박는 것 보다 흐름을 기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요.~)

④[인과]

-> 그렇죠. [문제 상황 ->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통해 -> 성과 속으로 판별하는 과정 = 집합의례]였으니까요.)

[비문학 33~34번]

33번 : ①[구분][비교]

->①은 '암흑물질'에 해당한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암흑물질 미포함)은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암흑물질 포함)보다 작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밝기질량(속도질량)로부터 은하단 내부의 실종된 질량 (= '암흑 물질'의 질량)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상 [A보다B가C하다.]라는 [비교]를 나타내주는 문장은 주목해서 읽도록 하자.

②[인과]

->암흑물질은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하며(=만약 암흑 물질의 존재가 없다고 가정하면, 중심부 밖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A에서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들어야 함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는 B처럼 중심부 밖에서도 속력이 일정함->why?-)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인 암흑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주어서 속력이 일정하게 됨), 이러한 관측 결과를 통해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③[인과]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밝혀진 개념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정의][비교]

->④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에 해당하며,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인과]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고온의 가스는 서로 충돌하는 반면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린다. 또한 이 때 각각의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에 있는 ②(=암흑물질) 역시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

34번 : ②[인과]

->(그림)에서 A와B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A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경우이다. 중심부 내부와 중심부 외부를 우선 구분해주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심부 밖에서의 A와B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A는 실제 관측 경우가 아닌, 암흑물질의 존재를 모를 때의 가정인데, 이 경우에는 '중심부 밖'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별의 속력이 줄어든다]라고 가정한 경우이다. 하지만 B와 같은 실제 관측 결과 '중심부 밖'에서 별의 속력은 가정(=줄어든다)와 다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는 [중심부 밖에서->중력이 줄어들기는 함. 그러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왜 그럴까?->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 즉 암흑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중심부내부&외부)에 많아져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때문이다. 즉 A와B의 중심부 밖에서의 별의 속력차이를 통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밝혀낸 것이다.

②은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A와B 모두 중심부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공전 속력이 증가하는데 이는 2문단 두 번째 문장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암흑 물질'은 중심부에 '보통의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눈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물질'들이다. 그리고 암흑 물질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설명은 없으며, '공전 궤도 안쪽=중심부내부&외부'에 존재한다는 설명뿐이다.

①[인과]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 중력이 당기는 힘이 더욱 줄어들 -> 그래서 그 별의 속력은 더욱 감소해야함->그런데 속력이 일정하네. -> 왜? ->암흑물질이 공전궤도 내부에 존재해 -> 근데 그게 왜? -> 은하의 중심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그 별의 공전궤도 내부의 범위가 커지고 -> 그 공전 궤도 내부의 범위가 커질수록 안에 포함된 암흑 물질의 양이 많아지고->그래서 그러한 암흑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 중력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별의 속력을 더욱 보충해줌->그래서 속력이 일정 -> 아 더 많이 줄어드는 중력으로 인한 속력의 감소만큼 더 많은 암흑 물질의 양이 보충을 해야 속력이 '일정' 하겠구나 -> 그래서 적절하구나]의 [인과]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③[비교][인과]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은 A<B이다. 그림에서 B의 속력 값은 중심부 밖에서 A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적절하다. 그러한 이유는 A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았고, B는 암흑 물질의 존재가 포함된 실제 관측 결과이므로, 그러한 암흑 물질이 A에서의 가정처럼 '중심부 밖'에서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주므로 '중심부 밖'에서는 A보다 B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력이 더 크다(->그래서 A보다 B의 속력이 더 큼)는 것을 보여 준다.

④[비교]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는 '중심부 밖'에서의 A와B의 별의 공전 속력의 차이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실종된 질량(=암흑 물질의 질량)은 A라는 가정과 B라는 실제 관측 결과의 차이를 통해 밝혀졌다.

⑤[비교]

->적절하다. A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몰랐을 때의 가정이고, B는 실제 관측결과이다. 이러한 두 결과의 차이를 통해 '암흑물질'에 대한 존재를 알아내는 근거가 되었다. 해당 그림에서 A와B를 [구분]하고 [비교]해주는 게 핵심이다.

[문학 35~38번]

35 : ⑤

->[도대체가 ~ 장난일 뿐이었다.] +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택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등과 같은 발문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사내는 "사내;; 도대체 왜 자꾸 악몽을 꾸고, 새들이 조롱 속으로 잡혀오는 이해가 안 되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①

->인물의 독백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②

->[병렬 = 나란히 늘어섬]이라는 의미인데, 현재 해당 지문은 [현재]사건을 기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소설에서 과거를 표현할 때는 보통 [과거 회상]을 통해서 과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죠. 사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고 보는 게 적절해요. 만약 과거와 현재가 병렬이라면 [과거 - 현재 - 과거 - 현재]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죠.

③

->긴 문장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어요.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얇은 소갈머리가 가 없어 죽겠다는 듯~ 말 뿐이었다]가 즐라 긴데 한 문장이네요. 또한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지도 않구요.

④

->[그러던 어느 날 밤]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고 있죠. 그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서술되는 [사건]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장면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빈번하다 = 번거로운 정도로 도수가 잦다]라는 의미인데 1번의 장면 전환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볼 수 없네요. 또한 [인물 사이의 긴장감 고조]는 장면 전환을 통해 드러나지도 않죠. 장면 전환 후에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인물은 사내뿐이며, 따라서 그러한 사내와 다른 인물과의 갈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긴장감 역시 고조되지 않네요.

36번 : ③

->[그런 사연 = 도대체 왜 자꾸 새들이 조롱 속으로 잡혀오는지]이죠.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전깃불을 보고 -> 느끼는 사내의 감정]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네요. 나머지 선지들은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37번 : ②

->[현실에 대한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 = 모른 채 하고 잠을 다시 청할 수 없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해당 발문을 지문에서 읽어보면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 ->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림 -> 그래서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음 -> 담배 한 대 펴]인데 [분노]라는 감정이 드러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①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 = 전깃불로 사냥하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지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보기>의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③

-><보기>의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 -> 그 모순이 공원에서 사건으로 드러남]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한 공원의 모습 중 [불빛으로 인해 ->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에 드러난다고 보면 되구요.

④

-><보기>를 보면 [폭력적이고 억압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 강조 +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 = 부정&길들여짐의 모순] ->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에서 드러난다]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즉 [전깃불 = 억압적인 세계, 전깃불에 쫓기는 새가 다시 불빛으로 뛰어듬 = 길들여진 모습]이니까요.

⑤

->[전깃불빛 -> 실제로 빛줄기를 앞에서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 -> 사내는 벌써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사지 움츠림]에서 확인 가능해요. 전깃불빛을 [사냥]이라고 표현하고, 그러한 불빛으로 인해 사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의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 -> 공원에서 사건으로 드러남]과 연결시켜서 감상할 수 있죠.

38번 : ⑤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님 -> 녀석들에게서 새를 모두 사야하는 처지 -> 왜? -> 그는 아직도 가막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니까 ->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몇 번씩이나 다짐 -> 그래서 젊은이의 가계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젊은이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①

->개소립니다.

②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경 나나 라는 말이죠. 무언의 항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③

->? 지문에 없는 내용.

④

->그는 벤치 위에서 자죠.

[비문학 - 39~41번]

39번 : ㉠[구분][조건][목수]

->㉠은 '스타이건'의 작품이기 때문에, 스타이건의 의도가 드러난 작품인데, 그러한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에서 벌써 틀림. 세부적인 사실을 묻는 건데, 근경인 로댕과, 원경인 빅토르 위고 이 두 피사체는 한 사진에 담겨있다. 즉 [빅토르 위고(원경)&로댕(근경)]사진+[청동상<생각하는 사람>]의 사진을 합성한 거임. 따라서 바로 틀린 선지. 원경&근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글을 대충 읽으면, 둘이 다른 사진 같은데, 지문 2문단에 [스타이건은 로댕을 대 리석상 <빅토르 위고>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라고 친절히 나와 있음.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합시다.

나머지 선지들(목/수)은 추론할 것도 없이, 지문에서 눈으로 확인만 해주면 되는 사실 판단 선지들이니 잘 찾아봅시다.

㉢정도만 좀 헛갈릴 수 있는데 3문단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목상 하는 모습]이 선지에서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로 바뀐 것.

40번 : ㉡[비교][구분][주장]

->맞는 말임. 로댕은 사진, 조각, 문학 모두 해석이 된다고 여겼음. 이는 스타이건과 로댕의 공통점임. 3문단 [스타이건은 사진 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에서 확인 가능함. 둘의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읽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지에 해당함.

㉠[구분][비교][주장]

->스타이건은 사진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19세기 초까지의 사진에 대한 인식과 유사)에서 벗어난 '회화 주의'를 주장했고, 로댕 역시 여기에 동감. 3문단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에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 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건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함(=스타이건도 사물의 외형만을 재 현하려는 19세기의 사진에 인식에서 벗어나 회화주의를 주장했기 때문)].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구분][특징]

->빅토르 위고는 스타이건이 만든 작품에 피사체일 뿐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빅토르 위 고에 대한 설명은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밖에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 이게 맞는지 헛갈렸으면, 전형적으로 글을 봉 뜨게 읽는 독해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구분][목/수]

[명암대비->애초에 그렇게 촬영, 하나의 사진(=빅토르 위고&로댕)에서 모두 드러남->따라서 합성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님]

[대립적 구도->원판을 합성해서->작가가 의도한 대로]

[질감에 변화->특수한 감광액 사용해서]

의 [목적/수단]을 묻는 선지이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을 섞어서 제시해냈는데, 당황하지 말고 각각 [구분]해주면 된다. [스타이 건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사진 기법으로 구현->명암의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함->애초에 하나의 사진(=합성되지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얇은)인,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 안에서, 로댕(근경-)어둡게-)암)과 빅토르 위고(원경-)환하게-)명이 모두 드러남. 합성 사진 기법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을 뿐임. 또한 질감의 변화는 감광액을 사용해서 나타난 것이며,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는 원판의 합성을 통해 구현된 것.

⑤[구분][비교][인과]

->스타이건은 회화주의.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은 회화주의 이전에 19세기 초에 사진에 대한 인식임. 그러한 재현의 수단으로서의 사진에 대한 인식(19세기)에서 벗어나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하면서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음. 이들은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함. 그러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이건임. 따라서 모순된 선지에 해당함.

41번 : ④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 -> 개소리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스타이컨이 주장하는 것은 조각, 사진 작품들도 '문학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 문학에 종속된다고 말한 것은 아님. 종속이라는 것은 '자주성 없이 팔려 불음' 정도의 의미인데, 스타이컨이 말한 '문학처럼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학과 조각, 사진이 동등한 성격을 갖는다' 정도로 해석하면 됨. 이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거의 대부분 '종속'의 어휘를 몰라서이니, 평소에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영어만 찾지 말고 국어에서도 사전을 찾아서 정리해둬시다. 4문단 마지막에서도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동등하게)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부분에도 종속이 틀렸다는 근거가 있음.

나머지 선지들은 지문에서 찾아주시면 되어요.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학 42~45번]

[김시습 - 만복사저포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 전하는 다섯 편의 한문 소설 중 하나로 이승 사람인 총각 양생과 이승 사람이 아닌 한 여인의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전기 소설이네요.

전체줄거리 :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구석방에서 외로이 살고 있었다. 만복사에는 매년 삼월 이십사일 청춘 남녀들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양생은 부처님 전에 저포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과 내기를 하여 이긴다면 그 대가로 배필을 점지해달라는 소원을 빔. 내기에서 이긴 양생은 불상 뒤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부처님 전에 축원문을 올리는 여인이 배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자신의 방에 데려와 인연을 맺는다. 양생은 그 여인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삼일 재 되는 날 여인은 양생에게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해요. 헤어질 때 그녀는 은주발을 주며 내일 보련사에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부모를 만나라고 말하구요. 다음날 양생은 보련사가 길에서 여인의 부모와 만나게 되고 여인의 부모에게 은주발을 얻게 된 경위를 말하죠. 그리고 그 부모는 여인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자신들의 자식임을 밝혀요. 보련사에 도착한 양생은 음식을 먹는 혼백의 수저 소리로 자신들의 딸의 행위에 의아해하는 부모에게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죠. 여자는 양생과 더불어 부모가 베푼 음식을 먹고 나서 저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라짐. ㅎㅈㅈ. 양생은 이에 홀로 귀가하구요. 어느 저녁 양생은 자신은 타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도를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는 여자의 말을 들어요. 양생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내요. 올 순정파.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양생이 여인과 3일을 지내는 장면과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의 존재를 그녀의 부모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42번 : ①

->시녀가 양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은 너무 하잖아. 막장 드라마네. (중략) 앞부분을 보면 시녀가 양생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맞지만, 이는 [여인이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죠.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②

->여인의 두 번째 발화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연X -> 인연]이라고 함으로써 시녀와의 대화를 통해 양생을 만나게 된 것에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부럽다. 양생.

③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 더는 의심치 않았다.]에서 확인 가능.

④

->[양생이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 함 ->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엮 -> “내겐 딸이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두고 ~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 전부가 딸의 과거사에 대해서 부모가 떠올리고 양생에게 발화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적절하네요.

⑤

->그렇죠. 종인 양생이 은주발을 들고 있는 것만 보고 뇌내망상을 통해 양생을 도둑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전했죠.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 “아가씨 장례 대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훔쳤다]라는 판단을 전했죠.

43번 : ②

->㉠은 [좁은 판자방]인데, 양생은 이곳으로 여인을 데리고 가고, 둘이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지어주고 하면서 인연을 맺죠. 부럽다. ㉠은 지문 마지막에서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즉 자신의 딸과 양생과의 인연을 인정해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①

->두 공간 모두 공간 자체는 현실적 공간이죠. 다만 그러한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하는 거구요.

③

->[제의]라는 것은 [제사의 의식]정도의 의미예요. 따라서 제의성이란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인데, ㉠은 양생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인연을 맺는 장소일 뿐이지, 제의성이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죠. 오히려 ㉠은 제의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또한 ㉠도 틀렸죠. [신성 :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이라는 의미인데, 신성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기이성, 비현실성, 전기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게 고결하고 거룩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성성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④

->둘 다 여인이 자의에 의해서 들어간 공간이죠. 타의면 양생 경찰서 가야 됨. ㉠은 [여인이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를 보면 되고, ㉡은 [여인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타의 X.

⑤

->둘 다 아니죠. ㉠을 헛갈릴 수 있는데, 양생이 여인을 데려간 공간이지, 여인을 위해 직접 마련한 공간은 아니에요. 지문 첫 부분에서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음 ->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음 ->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에서 확인 가능하죠. 마련한 공간은 X.

44번 : ③

->[보기]의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와 같은 의도에 부합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문에서도 양생은 여인이 죽은 자라는 정체를 알고 나서도 [법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양생의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①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

후국일 X 글장이 랜덤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인은 현실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뿐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죠. 후에 그러한 여인이 귀신이었다는 점이 [기이함, 전기성,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여인의 모습 자체가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보기>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즉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이라는]다라는 의견은 <보기>의 기획 의도를 살린 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②

->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지 않죠.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등에서 알 수 있네요. <보기>에 따르면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 ->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함 +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인데,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는 이러한 기획 의도를 살리지 못한 의견이 되겠네요.

④

->비현실적 요소를 살리겠죠. <보기>에서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가 기획 의도였으니까요.

⑤

->양생과 여인과 술자리를 갖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밝고 경쾌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추는 것]이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 의견이죠. <보기>에 따르면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45번 : ④

->오랜만에 보는 사자성어. 해당 부분은 여인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은 채 자신이 사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지낸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따라서 ①인 [두문분출 :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한다.]가 적절하겠네요.

①

->망양지탄 :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의미인데,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구하기 힘들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네요. :) = 다기망양.

②

->가인박명 :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다. 여러분은 박명하겠네요. 개소리 ㅈㅈ)

③

->독야청청 :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모두가 긴장을 놓은 7일간 이 모의고사를 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개신기하네 선지. ㅇㅈ?

⑤

->일편단심 :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을 향한 김민수의 마음이죠. 개소리 ㅈㅈ)